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7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11.(목) 오전 10시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7. 11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위성원 사무관(044-203-4086)

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9. 7. 11.(목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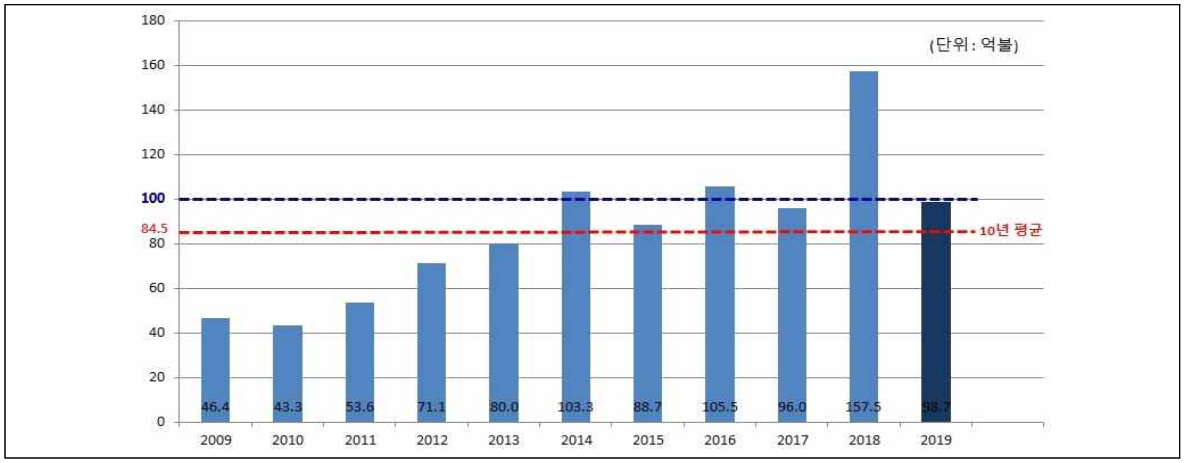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(INSC)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코트라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**2019년 상반기** (1.1 ~ 6.30)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6월 30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**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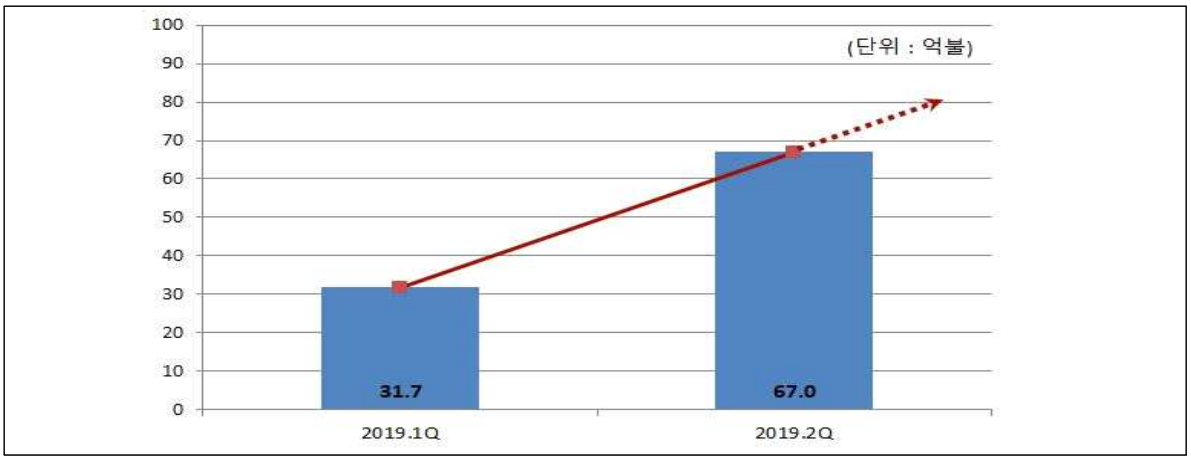
○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마다 발표**되며,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19년 10월 중순 발표예정**

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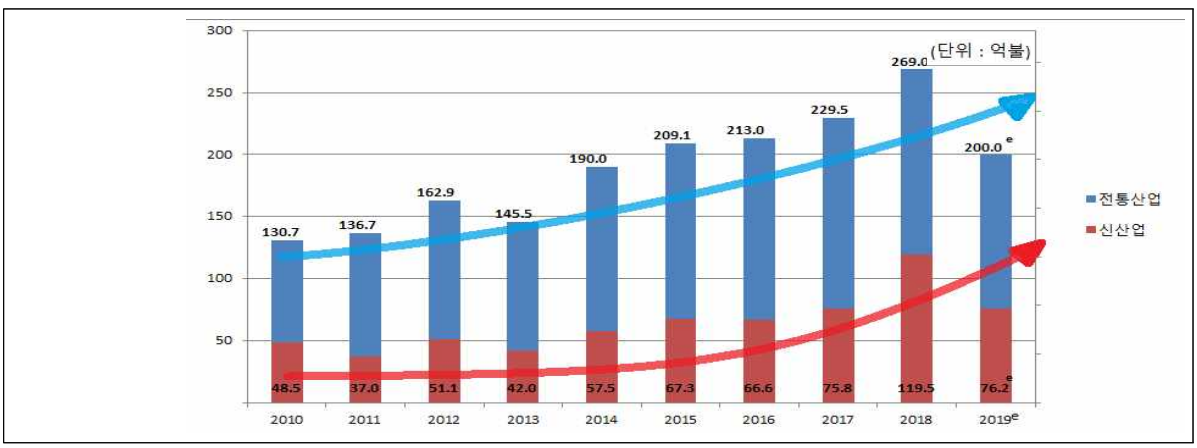
1 과거 10년 평균치를 상회, 장기적인 상승세 유지



2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→ 반등모멘텀 창출



3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입



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, "5년 연속 200억불" 달성 위한 반환점 돌아!

- 신고기준 98.7억불, 도착기준 56.1억불 기록 -

- 첨단기술 · 신산업 · 한류연계형 투자 증가세 보여 -

Ⅰ.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개요

□ '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98.7억불(전년 동기대비 △37.3%), 도착기준 56.1억불(△45.2%)을 기록함

○ 금번 실적은 신고와 도착기준 모두 10년 평균 실적치(각각 84.5억불, 52.2억불)를 상회하여 장기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음

【 연도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 : 억불) 】

연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10년평균('09~'18)	2019
신고	46.4	43.3	53.6	71.1	80.0	103.3	88.7	105.5	96.0	157.5	84.5	98.7
도착	26.6	22.8	29.6	48.8	46.4	76.0	63.1	51.5	54.5	102.2	52.2	56.1

* 이번 실적은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신고기준으로 4위, 도착기준으로 4위에 해당

○ 분기별로는 2분기 67.0억불을 기록하여 1분기 31.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며 반등의 모멘텀을 창출함

□ 금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❶기저효과와 ❷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하락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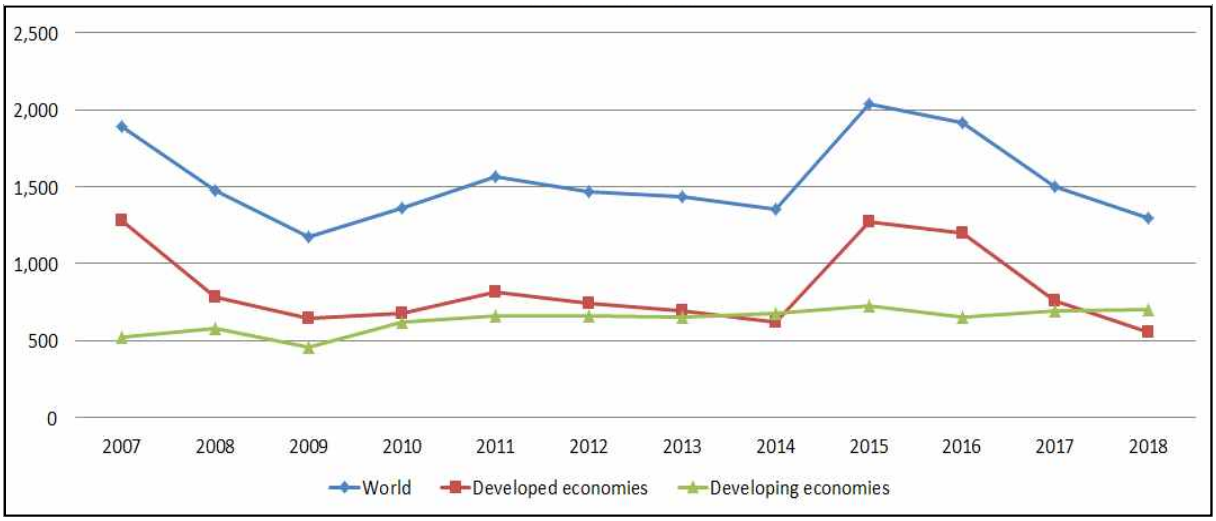
❶ **(기저효과)** '19년 상반기 실적은 '18년 상반기* 유례없이 높은 실적(157.5억불, 신고기준)으로 인해 상대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임

* 제너럴모터스(36억불)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신고되어 통계적 이상치(outlier)에 가까운 실적 기록

❷ **(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감소)** '18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'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1.3조불을 기록(UNCTAD, '19.6월 발표)

*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(조불): ['09] 1.18 → … → ['15] 2.03 → ['16] 1.91 → ['17] 1.50 → ['18] 1.30

【 연도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(단위: 십억불) 】



Ⅱ.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

◈ **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·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**

* 상반기 신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(억불): ('15) 20.5 → ('16) 29.2 → ('17) 29.6 → ('18) 89.3 → ('19) 37.6

◈ **다양화·고급화되는 국내·외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한 문화상품과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다변화**

1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

○ 나노와 폴리머, 반도체 재료 등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소재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
○ 또한, 국내·외 기업의 강점들(한국의 공정관리+외국의 기술)을 결합하여 국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투자도 진행됨

< 첨단소재 투자사례 >

- **(R사)** 초미세필터, 기능성 의류, 마스크팩 제조에 쓰이는 탄소 나노섬유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그린필드형 증액투자 (뉴질랜드, 0.3억불)
- **(V사)** 플랜트·항공기·반도체용 씰(seal) 생산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. 반도체용 씰 제품의 국내생산을 통해 수입대체효과 창출 (일본, 0.1억불)
- **(L사)** 고무의 탄성과 폴리머의 강성을 가진 첨단소재 생산을 위해 국내·외 기업간 합작투자를 진행 (이탈리아, 0.5억불)

2 성장가능성 높은 한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

○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과 의료 시스템, 우리 정부의 산업육성의지 등 한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

○ 정보기술(IT)과 헬스케어를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련된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

< 바이오 · 헬스케어 투자사례 >

- **(D사)** 희귀성 섬유화증, 파킨슨병·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R&D연구시설 증축을 위한 증액투자 (케이만군도, 0.5억불)
- **(B사)** 화장품, 식품, 노화 방지 솔루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식물세포 연구를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자 (스위스, 0.1억불)
- **(W사)** 사물인터넷(IoT)을 활용, 원격조종이 가능한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생산·판매하기 위한 독일 바이오기업의 증액투자 (독일, 0.2억불)
- **(G사)** 개인별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기 위한 투자. G사는 세계적인 소비자 직접의뢰(DTC, Direct To Consumer) 유전자 검사업체 (미국, 0.1억불)

3 한류(K-move)와 연계한 문화서비스와 고급소비재 투자 증가세

○ 케이 뷰티(K-beauty), 케이 팝(K-pop) 등 한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공연·예술·이스포츠(e-sports)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유입되어 외국인투자가 다변화됨

○ 미용·화장품 분야에서 유명 외국 브랜드의 국내투자 증가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국내 뷰티 스타트업의 성장세도 보임

○ 고급소비재와 선진배송 물류서비스가 결합한 O2O·콜드체인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

* O2O :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마케팅으로 Online to Offline의 약자

< 고급소비재 · 문화상품 투자사례 >

- **(C사)** 일산시에 실시간 중계 라이브공연장, 체험용 스튜디오를 갖춘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, 케이컬처를 공연·예술 문화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 (싱가포르, 0.1억불)
- **(K사)** 이스포츠 구단을 인프라가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기 위한 투자. 역량 있는 한국 프로게이머를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 (케이만군도, 0.1억불)
- **(M사)** 화장품 제품에 한국산 프리미엄을 더하여 O2O 형태로 유통하던 기업이 외국 기업주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 (미국, 0.1억불)
- **(S사)** 자사브랜드를 비롯하여 약 300개의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세계 최대 글로벌 뷰티 편집숍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매장 개설 (프랑스, 0.1억불)
- **(K사)**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이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사례. 국내기업은 고품질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품·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(케이만군도, 0.6억불)

4 모바일 플랫폼 등 정보기술(IT)활용 서비스 분야 투자 활발

○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팻케어·부동산·전자상거래·공유 주방 등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

○ 모바일·웹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·유통하는 투자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특징임

< 새로운 서비스 · 플랫폼 투자사례 >

- **(D사)** 반려동물주와 펫시터를 모바일로 중개하는 O2O 플랫폼 스타트업이 미래성장성을 인정 받아 확장을 위한 재무적투자를 유치한 사례 (0.1억불, 미국)
- **(J사)** 가상현실홈투어, 빅데이터 분석 등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가의 증액투자 (0.1억불, 싱가포르)
- **(C사)** 인도네시아 시장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작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사례 (0.1억불, 미국)
- **(C사)**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차량공유 외국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진출과 공유경제 사업다각화를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춘 공유주방 스타트업에 투자 (미국, 1.6억불)
- **(P사)**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공동으로 양국에서 모바일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·운영 (0.1억불, 일본)
- **(Y사)** 국내 최대 온라인 종합 자유여행상품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아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추가투자를 유치 (싱가포르, 1.3억불)

Ⅲ. 전망과 향후계획

1. 전망

□ **(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)**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*이 상존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'18년 대비 소폭 반등(modest recovery) 정도의 변화가 예상(UNCTAD, '19.6월)

* 미·중 무역 분쟁 등 보호주의 확대, 글로벌 경기하락 전망, 지정학적 리스크(이란 등) 확대,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등

□ **(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)** ①2분기 실적 증가, ②신산업·스타트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수요, ③화공, 전기·전자 등 주력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"5년 연속 200억불"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2. 향후계획

◈ **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연내 2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**

①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강화

- 첨단 부품·소재, 3대 핵심 신산업(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) 등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

②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신규·증액투자 유도

- 해외 기업설명회(미국 8월, EU 9·12월, 중국 10월)과 외투 카라반(9·12월), 외국인 투자주간(11월) 등 유치활동을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

③ 인센티브 제도 개선: 외촉법 개정 등

-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촉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

Ⅳ. 세부동향

1. 국가별 특징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❶ 미국은 자국우선주의에도 불구,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
❷ 유럽연합(EU)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한국투자 감소
❸ 일본은 2020올림픽 등 국내투자에 집중하여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저하됨
❹ 중국은 미중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

1 미국 (비중: ('18) 19.1% → ('19) 31.5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3.1% 증가한 31.1억불**을 기록 (비중 31.5%), 도착기준은 **65.8% 감소한 6.3억불**을 기록 (비중 11.2%)

('18) ①**정보통신**(9.4억불, +2,204%), ②**부동산**(5.6억불, +98.0%), ③**운송용기계**(4.8억불, △5.1%)
('19) ①**부동산**(9.6억불, +71.1%), ②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7.0억불, +178.0%), ③**정보통신**(4.9억불, △47.9%)

○ **(미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)** 미중 간 무역분쟁, 리쇼어링정책 등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,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 중심의 한국투자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

* 중국 이외에도 유럽연합,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무역수지 적자 부문에서 통상협상 진행 중

○ **(부문별)**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58.3% 증가한 12.4억불, 서비스업은 14.5% 감소한 18.6억불을 기록

- **(증가업종)** 기계장비·의료정밀(2.5→7.0억불, +178.0%), 화공(0.4→1.6억불, +269.2%)분야에서 제조업 투자 상승세를 견인하였고,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(5.6→9.6억불, +71.1%), 운수·창고(0.8→1.3억불, +66.4%) 투자가 증가

- **(감소업종)** 정보통신(9.4→4.9억불, △47.9%), 숙박·음식점(0.6→0.05억불, △92.7%), 금융·보험(2.7→0.04억불, △98.4%) 등이 크게 감소

○ **(주요특징)**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, B2C 서비스(고급소비재, 엔터테인먼트) 분야 신규 투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
* B2C :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 Business to Costomer의 약자

미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기계장비)**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시스템 관련 투자(E사, 7.0억불)
▸ **(물류)** 전자상거래 주문이행(fulfillment)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센터 투자(L사, 0.3억불)
▸ **(스타트업)** 초기 외식창업자들을 위한 공유주방 공간 제공(C사, 1.6억불)

2 유럽연합(EU)(비중: ('18) 29.0% → ('19) 27.1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41.5% 감소한 26.8억불**을 기록 (비중 27.1%), 도착기준은 **12.8% 감소한 29.2억불**을 기록 (비중 52.0%)

('18) ①**운송용기계**(19.9억불, +2,024.8%), ②**도소매업**(6.6억불, +475.8%), ③**전기·전자**(5.5억불, +289.7%)
('19) ①**도·소매업**(10.6억불, +61.2%), ②**금융·보험**(6.6억불, +26.6%), ③**숙박·음식점**(3.8억불, △26.8%)

○ **(EU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)**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유로존 경기 성장률 둔화*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, 대한(對韓)투자도 감소

* 유럽중앙은행(ECB)은 역내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따라 유로존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('19)1.6 → 1.2%로, ('20)1.7 → 1.6%로 하향조정

○ **(부문별)**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83.1% 감소한 4.5억불, 서비스업은 18.3% 증가한 21.9억불을 기록

- **(증가업종)** 제조업에서 화공(0.6→1.6억불, +188.3%), 서비스업에서 도·소매업(6.6→10.6억불, +61.2%), 금융·보험(5.2→6.6억불, +26.6%) 부문의 투자가 증가

- **(감소업종)** 제조업은 운송용기계(19.9→1.7억불, △91.4%), 전기·전자(5.5→0.5억불, △90.3%), 서비스업은 숙박·음식점(5.2 → 3.8억불, △26.8%) 부문에서 감소

○ **(주요특징)** 한국 내 이차전지·화학소재 가치사슬 진입을 위한 합작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국내 선진물류 거점센터 설립 등 국내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

EU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- **(첨단화학소재)** 고무와 폴리머의 성질을 지닌 첨단소재 생산(이탈리아, L사, 0.5억불)
- **(전기차핵심부품)** 이차전지의 양극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추가투자(룩셈부르크, U사, 0.2억불)
- **(전자상거래)** 아마존을 능가하는 선진물류 허브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(헝가리, S사, 3.1억불)
- **(소비재)** 한국 커피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대형 프리미엄 커피브랜드 인수(몰타, T사, 2.1억불)

3 **일본**(비중: ('18) 5.5% → ('19) 5.4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38.5% 감소한 5.4억불**을 기록 (비중 5.4%), 도착기준은 **51.2% 감소한 3.3억불**을 기록 (비중 5.9%)

('18) ①**정보통신**(1.5억불, +48.8%), ②**전기·전자**(1.3억불, △70.7%), ③**비금속광물제품**(1.3억불, 0.0%)
('19) ①**도·소매(유통)**(2.0억불, +194.3%), ②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1.0억불, +38.3%), ③**정보통신**(0.7억불, △55.1%)

○ **(일본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)** 2020 도쿄 올림픽 특수를 타고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세*가 10분기 연속 지속되는 등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에 자본이 집중되어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

* 특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, 우리나라에 이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최고 수준의 사이버방호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

○ **(부문별)**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57.9% 감소한 1.9억불, 서비스업은 18.5% 감소한 3.4억불을 기록

- **(증가업종)**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·의료정밀(0.7→1.0억불, +38.3%), 화공(0.4→0.6억불, +40.9%)부문 투자가 증가했고, 서비스업에서는 도·소매업(0.7→2.0억불, +194.3%)에서 증가세를 보임

- **(감소업종)** 정보통신(1.5→0.7억불, △55.1%) 전기·전자(1.3→0.02억불, △98.3%), 비금속광물(1.3→0억불, △100.0%)에서 큰 폭으로 감소

○ **(주요특징)** 신산업분야(블록체인, 핀테크)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제조업체 및 정보통신기술(ICT) 기업의 투자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이차 전지·반도체 분야 가치사슬 진출을 위한 투자는 견조세를 보임

일본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- **(정보통신)** 인공지능·핀테크와 결합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사업영역 확장(L사, 0.5억불)
- **(이차전지)**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제조 공장 증설 계획(W사, 0.5억불)
- **(반도체)**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씰의 현지공장 설립(V사, 0.1억불)

4 중국(비중: ('18) 14.0% → ('19) 3.1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86.3% 감소한 3.0억불**을 기록 (비중 3.1%), 도착기준은 **90.0% 감소한 0.7억불**을 기록 (비중 1.3%)

('18) ①**부동산**(8.0억불, +2,067.3%), ②**금융·보험**(5.8억불, +36,278.1%), ③**전기·전자**(1.9억불, +1,135.4%)
('19) ①**식품**(0.5억불, △60.5%), ②**부동산**(0.4억불, △94.6%), ③**연구개발**(0.4억불, +25.0%)

○ **(중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)**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, 부채 리스크와 금융부실 확산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*로 해외투자여력이 감소하여 상반기 한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

* '19. 4~5월 동안 120억불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이탈하며 정부차원의 자본규제 강화

○ **(부문별)**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69.6% 감소한 1.7억불, 서비스업은 92.1% 감소한 1.3억불을 기록

- **(증가업종)** 제조업에서는 화공(0.03→0.3억불, +808.5%) 부문, 서비스업은 연구개발·전문(0.3→0.4억불, +25.0%), 공공·기타서비스(0.0→0.05억불, +4,941.2%) 부문에서 증가

- **(감소업종)** 부동산(8.0→0.4억불, △94.6%), 전기·전자(1.9→0.07억불, △96.5%), 금융·보험(5.8→0.0억불, △100.0%) 부문에서 크게 감소

○ **(주요특징)** 화장품, 미용기기 등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제조생산을 위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

중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 주요사례

▸ **(화장품)** 화장품 제조업체로 한국 뷰티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투자(Y사, 0.2억불)
▸ **(미용기기)** 피부재생, 체형개선 등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투자(H사, 0.4억불)

2. 업종별 특징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1 제조업(비중: ('18) 45.7% → ('19) 31.3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57.2% 감소한 30.9억불**을 기록 (비중 31.3%),
도착기준은 **75.0% 감소한 13.3억불**을 기록 (비중 23.9%)

('18) ①**운송용기계**(50.4억불, +717%), ②**전기·전자**(9.1억불, +152%), ③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6.1억불, +160%)
('19) ①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9.9억불, +61.7%), ②**운송용기계**(6.9억불, △86.4%), ③**화공**(6.7억불, 198.2%)

○ **(증가업종)** 기계장비·의료정밀(6.1→9.9억불, +61.7%), 화공(2.3→6.7억불, +198.2%), 식품(1.8→3.4억불, +94.9%)에서 증가함

○ **(감소업종)** 운송용기계(50.4→6.9억불, △86.4%), 전기·전자(9.1→1.9억불, △79.2%), 비금속 광물제품(1.5→0.4억불, △72.5%)에서 감소

2 서비스업(비중: ('18) 53.2% → ('19) 68.1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19.7% 감소한 67.2억불**을 기록 (비중 68.1%),
도착기준은 **28.4% 감소한 35.4억불**을 기록 (비중 63.0%)

('18) ①**금융·보험**(22.0억불, △16.8%) ②**부동산**(21.7억불, +69.4%), ③**정보통신**(14.0억불, +362%)
('19) ①**도·소매(유통)**(18.7억불, +53.1%), ②**금융·보험**(15.8억불, △27.9%), ③**부동산**(14.2억불, △34.7%)

○ **(증가업종)** 도·소매업(12.2→18.7억불, +53.1%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2.3→2.9억불, +30.5%) 업종에서 증가세를 시현

○ **(감소업종)** 금융·보험(22.0→15.8억불, △27.9%), 부동산(21.7→14.2억불, △34.7%), 정보통신(14.0→8.0억불, △42.8%)에서 큰 폭으로 감소

3. 유형별 특징 (신고기준, 전년동기대비)

1 그린필드형(비중: ('18) 81.5% → ('19) 71.7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44.9% 감소한 70.8억불**을 기록 (비중 71.7%), 도착기준은 **61.3% 감소한 30.6억불**을 기록 (비중 54.4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감소(56.2→24.6억불, △56.1%), 서비스업 감소(70.5→45.9억불, △34.8%)

- **(증가업종)** 도·소매업(5.5→12.8억불, +130.8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4.6→9.2억불, +100.2%), 화공(1.6→5.9억불, +267.7%) 부문에서 증가

- **(감소업종)** 부동산(21.6→14.0억불, △35.1%), 금융·보험(19.6→4.9억불, △74.9%), 운송용기계(37.5→0.5억불, △87.1%) 부문에서 감소

2 인수합병(M&A)형(비중: ('18) 18.5% → ('19) 28.3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**4.3% 감소한 28.0억불**을 기록 (비중 28.3%), 도착기준은 **9.4% 증가한 25.6억불**을 기록 (비중 45.6%)

○ **(업종별)** 제조업 감소(15.9→6.2억불, △60.8%), 서비스업 증가(13.3→21.3억불, +60.7%)

- **(증가업종)** 금융·보험(2.4→10.9억불, +349.4%), 숙박·음식점(1.8→3.8억불, +116.4%), 식품(0.02→2.3억불, +12,429.0%)에서 증가

- **(감소업종)** 운송용기계(12.9→2.0억불, △84.6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1.5→0.6억불, △57.9%), 정보통신(2.1→0.1억불, △94.6%) 분야에서 감소. <끝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